

1강: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빌 1:1-11)

<빌립보서의 배경>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행 16장 11절 이하 참조)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엡, 빌, 골, 몬)

* 참조: 바울서신 본문 읽기 순서

전문 읽기 - 단락 구분 후 단락별로 다시 읽기 - 각 단락 별 표제어 적기 - 역사적/문학적 맥락 살피기 ->>
각 단락별 주요 내용/구문/단어 주목 - 주요 주제/신학 살피기 -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 - 적용점 찾기

빌 1:1-11 빌립보서의 서론(인사 - 감사 - 기도)

1) 1-2절: 인사말

1 그리스도 예수 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 3-8절: 감사와 간구, 확신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모든)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3) 9-11절: 기도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리/나눔 질문>

1. 캄캄한 감옥 안에서 매를 맞아 생긴 상처, 추위, 굶주림, 외로움, 막막함 등으로 잔뜩 지쳤을 바울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게 했던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던 빌립보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역자(참여자, 5절, 7절)의 가치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거뭇거뭇한 손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가며 오롯이 그들을 향해서 건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감사와 간구, 확신과 축복의 마음으로 벅차오른 바울의 기쁨 때문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기쁨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2. 여러분에게는 생각날 때마다 감사와 간구, 확신과 축복의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소를 잃지 않게 만들어 주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바울은 "너희 (모든) 무리"(4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범위/수를 넓혀 보시지요.

3. 9-11절의 기도문을 함께 모인 분들을 향해 읽어주며 축복해 주세요.

* 이외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내게 유독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2강 사슬에 매임과 기쁨(빌 1:12-18)

-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

1. '내가 당한 일'(12절): '매임'(데스모스, 13, 14, 17절).

- 투옥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가이사라(행 24장) 혹은 로마(행 28장))

2. 매임(데스모스)의 결과: 2년 동안 복음의 전파에 '진전'(프로코페, 12절)

- 바울의 '데스모스'와 그리스도 복음의 '프로코페'(발전, 진보, 앞서나감)

3. '진전'의 이유: 바울의 매임 소식을 듣고, 형제 중 다수가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함(14절)

1)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2가지 동기: 시기어린 경쟁, 애정어린 동역

- A 투기와 분쟁으로(15절)
- B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전파(15절)
- B' 바울의 사도성 인정 + 사랑으로 동역(16절)
- A' 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순수하지 못한 경쟁심으로 전파(17절)

- >> 'A 부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힌 바울을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2) '묶인' 바울의 심정(18절)

복음 전파가 불순한 의도이든 순수한 의도이든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 여기서 바울이 확신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리/나눔 질문>

1. 바울의 '매임'은 감옥 안에서 사슬이 아닌, 점점 널리 퍼져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미 묶여 있는 바울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프로코페'를 자신의 '프로코페'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구요.

2. 그리스도께 철저히 매여 있으면 어떤 '데스모스'도 '프로코페'이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묶여 있으면, 나의 '데스모스'는 정체나 퇴보에 불과하며, 그게 길어지면 실패로 보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끈의 끝'을 한 번 살펴 보시고, 그 끝을 매듭지어 반드시 그리스도께 거십시오.

3강 교회의 유익(빌 1:19-26)

빌립보교회를 생각하면 기뻐던 바울(1-11절),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갇혀 있어도 몹시 기뻐던 바울(12-18절)

(1) 19-21절: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2개의 '호티')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에모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 22-24절: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3) 25-26절: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프로코페’)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카우케마’)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눔 질문>

1.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바울이 훨씬 더 선호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23절) 여러분은 무엇을 훨씬 더 선호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 지 몰라 내심 갈등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23-24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